

잡곡밥·간식·음료... '슈퍼곡물'이 뜬다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슈퍼곡물'이 웰빙추세와 맞물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원곡을 가공한 식품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판매가 늘고 있다.

11일 이마트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이마트 광주·전남 5개 지점의 렌틸콩(lentil bean) 등 슈퍼곡물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1% 늘며 작년에 이어 세자릿수 신장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영양곡물 매출에서 슈퍼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서 16.4%로 훌쩍 뛰었다.

슈퍼곡물의 인기는 곡물 수입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일명 '이슈리콜'로 불리는 렌틸콩 수입량은 2013년 366t에서 2014년 1만 21%로 일년만에 33배 급증했고 2013

렌틸콩 등 매출 대폭 늘어

구매층도 40~50대로 확산

식품업계, 새상품 잇단 출시

년 12t에 불과했던 퀴노아 수입량 역시 지난해 111t으로 늘며 9배 이상 증가했다.

이마트 잡곡 바이어는 "국내에 작년보다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슈퍼곡물'이 대중적인 건강식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판매량이 늘고 활용분야도 확대되고 있다"며 "구매층도 20~30대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40~50대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같은 슈퍼곡물의 인기는 웰빙, 안전 먹거리 트렌드에 힘을 얻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 잡곡밥 형태로

자아먹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간식, 음료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식품업계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즉석밥, 요거트 등 슈퍼푸드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소비자 마음 사로잡기에 나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슈퍼곡물을 사용한 어린이 간식도 등장했다.

식품업계에서는 향후 5년~10년 안에 슈퍼푸드 잡곡을 이용한 '건강 즉석밥'이 전체 즉석밥 시장에서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즉석밥 시장 규모는 2084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커졌다.

청과브랜드 'Dole(돌)'은 인공 감미료나 어떤 첨가물 없이 99.8%의 백미와 렌틸콩만을 사용해 만든 웰빙 스낵 '렌틸콩 라이스칩 위드 블루베리잼'을 선보였다.

풀무원건강생활 유산균 음료 전문 브랜드 풀무원프로바이오는 차세대 슈퍼푸드

로 꼽히는 차아씨드를 활용한 '식물성유산균 차아씨드'을 출시했다.

'그릭 요거트'를 중심으로 요거트 시장도 활기를 찾고 있다. 그릭요거트는 원유를 오래 끓여 농축한 뒤 유산균을 넣고 발효시켜 만드는 제품으로,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업계 최초로 '후디스 그릭 요거트'를 선보인 일동후디스는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인 '후디스 오가닉 그릭요거트'를 내놨다.

또 빙그레는 '오폐레 요파'를 남양유업은 '더먹는 불가리스 그릭요거트'를 출시했다. 관련업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그릭요거트 시장이 약 200~25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일손 부족한 농촌 도움시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사진)이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 방문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허 회장은 11일 국회 후생관 앞에서 열린 '다함께 농촌 가는 날'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해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농촌을 도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과 결합한 농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고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까지 인접한 우리 농업에 지금은 기회의 시기"라며 "오늘 캠페인은 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과 농업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캠페인 선포식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박민수·이재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또 이날 허 회장 명의로 회원 사들에 서한문을 보내 영농철(4~10월)에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6월에는 기계를 동원하기 어려운 과일이나 채소 수확, 모내기가 물려 있어 더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앞으로는 기업의 기술과 농촌의 농산물이 결합하는 상생 생태계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포스트 어버이 날 마케팅

11일 백화점 여성복 매출을 찾은 60대 고객이 어버이날 선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으로 옷을 산 후 결제를 하고 있다. 백화점들은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는 점포를 대상으로 '중년여성의 초여름 상품전'을 여는 등 대대적인 포스트 어버이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호반건설, 이번엔 동부건설 인수 노리나

동부건설 회생계획안 인가되면 내달 M&A시장 나올 듯

금호산업 인수전에 나섰다 호반건설이 이번엔 동부건설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다음달 중 M&A시장에 매물로 등장할 동부건설에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오는 22일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M&A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3일 관계인 집회에서 동부건설 조사위원인 삼정KPMG는 동부건설

의 계속기업가치(4102억원)를 청산가치(3826억원)보다 높게 평가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말 6700억원가량의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채권단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호반건설은 동부건설이 시장에 나올 경우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

오를 가진 호반건설이 지속적으로 건설사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부수적 이익을 누렸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동부건설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이 동부건설을 인수하게 되면 공공 공사 수주 능력과 함께 동부인스프레스를 통해 물류 사업 또한 강화할 수 있다. 동부건설의 센트레빌이라는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앞세워 역량 강화도 가능하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97.38 (+11.86)
- ▼ 금리 (국고채 3년) 1.88% (-0.01)
- ▲ 코스닥 692.29 (+10.60)
- ▲ 환율 (USD) 1091.30원 (+3.00)

"중도금 대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광주은행 인터넷 접수 서비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11일, 복잡한 중도금대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 '중도금대출 인터넷 접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중도금대출은 분양계약자들이 계약금 납입 후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특정 영업점으로 방문해야만 했다. 또한 작성 서류가 많아 서류 접수 시 고객 당 평균 20~30분가량이 소요되고, 앞선 중도금 대출 신청 고객 수에 경우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광주은행의 이번 서비스 개발을 통해 중도금대출이 필요한 고객

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중도금대출 절차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광주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분양계약서 등 필수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광주은행 상품개발실 박기원 실장은 "이번 중도금대출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중도금대출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

中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입점 세미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회장 박철희)가 15일부터 사흘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창업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와 더불어 상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열악한 자본력 때문에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 온라인 마켓 진출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062-383-6322).

이 기간 협회는 마윈이 경영하는 '알리바바 타오바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관련 세미나도 함께 연다.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C to C'(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와 'B to C'(기업과 개인간의 거

래), 'B to B'(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방식의 상점을 쉽게 개설하고 입점하는 방법 등을 강의한다.

협회 관계자는 "창업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와 더불어 상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열악한 자본력 때문에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 온라인 마켓 진출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062-383-6322).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전KDN, 우수직원·경영진 소통·화합 다져

에너지ICT 공기기업인 한전KDN(사장 임수경·사진)이 최근 2015년도 '우수직원 변화리더(9기) 과정'을 강진 및 원도 청산도에서 시행했다.

변화리더 과정은 회사에서 선발된 우수직원과 CEO 등 경영진이 함께 참여 소통과 화합, 팀워크를 다지는 한전KDN의 대표적인 조직활성화 프로그램이다. 한전KDN은 본사를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강진 및 청산도에서 전남의 우수한 문화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9기 과정을 진행했다.



임직원은 다산 유적지 탐방과 진도야리랑 배우기 등 전남 지역문화의 맛과 흥을 직접 체험한 뒤 화합과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KDN 관계자는 "변화리더 과정에 참여한 직원들이 경영진과 함께 걸으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회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두입신협 자산 2,200억 달성!!
조합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입출금이자유로운 알찬자유예탁금 연 2.10%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신협예금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p>동강대학 합점점 말바우시장</p> <p>두입신협 본점 263-0136 (말바우시거리)</p>	<p>두입타운시거리 합점점 기산로말바우시장</p> <p>두입신협 울곡지점 264-1232 (두입중학교 입구)</p>	<p>부영아파트 합점점 청담2지구 호반아파트</p> <p>두입신협 청담지점 572-9511 (호반아파트 청문 맞은편)</p>
--	--	---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남성</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성</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27-36세</p>	<p>남성</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우출신 여성' 희망 31-58세</p>

VIP 희망 여성
학원(음악)원장, 교사 29-5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우출신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